

광주시, 재난상황관리훈련 연속 우수

행안부 분기별 특·광역시 평가...2·3분기 장관상 수상 재난안전상황실-자치구 협업...반복훈련 등 역량 강화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전국 재난상황관리훈련 분기별 평가'에서 2분기와 3분기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2회에 걸쳐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들어 2회 이상 우수기관은 17개 특·광역시 중 광주와 경기도 등 2개 기관이다.

재난상황관리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를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 보고체계 확립의 해'로 정하고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다. 지자체가 재난 발생에 대비해 초동 대응하고, 신속·정확하게 상황보고를 하는 등 평시 상황관리체계 훈련으로, 재난상황보고훈련과 긴급재난문자(CBS) 발송훈련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된다.

재난상황보고훈련평가는 훈련목표시간 달성률 80%, 자체훈련 10%, 자체교육훈련 10%이며, 긴급재난문자훈련평가는 총 10점으로 신속성 3점, 적정성 5점, 자체 훈련 실적 2점이다. 훈련평가는 매월 실시하되, 3개월 평가를 종합해 분기별 평가 순위를 정한다.

광주시는 재난상황보고훈련과 긴급재난문자훈련에서 모두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시는 이번 평가를 대비해 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5개 자치구와 협

업체를 구축하고, 주·야간 불시 메시지를 수시 발송해 숙달훈련을 하는 한편, 훈련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자체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

정중제 행정부시장은 "실제 재난상황에 대비해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보고는 재난을 조기 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이다"며 "올해 2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관리훈련에 보다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올 겨울 시청서 스케이트 즐기세요”

광주시, 12월15일~1월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올 겨울에도 광주광역시정 문화광장에 야외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이 마련된다.

광주시는 12월1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시청 문화광장에 스케이트장, 얼음썰매장, 매점, 휴게실 등을 갖춘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6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얼음썰매장은 600㎡(30×20m) 규모로 전국 최대 수준이며, 스케이트장 규모는 60×30m(1800㎡)다.

이용 요금은 예년처럼 입장료 스케이트, 썰매, 헬멧 대여료를 포함한 시간당 1000원이며, 관련법에 따른 할인 대상자는 50% 감면된다.

이용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20분까지다.

특히, 올해는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11월 말까지 일선 학교를 찾아가 홍보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스케이트 체험교실(매주 화·수요일 오후 1시~2시), 주말과 공휴일 디제이박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북구, 일과 삶의 균형 지원나서 '워라벨 일자리 나눔 협약' 체결

광주시 북구가 일과 삶이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으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 북구는 "8일 변화하는 근로문화와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시대에 발맞춰 일·생활 균형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워라벨 일자리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북구를 비롯해 북구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 광주점단산단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3개 노·사·정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시퇴근 유도, 장시간 근무관행 개선, 유연근무 및 업무 간소화, 자유로운 휴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경직된 조직 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

또한, 지역 내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상호 협력·지원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가고 있으나 아직은 근로자들이 쉽게 활용하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정장은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워라벨 정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kissout@



광주시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행사 열려 이용섭 광주시장이 8일 오후 시청 앞 전디광장에서 열린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해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윤행 함평군수,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노대영 재광합평향우회장 등 내빈들과 함평천지한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산·학·연·관 뭉쳤다

전남도, 한전·목포대·광주과학기술원 등 8개 기관과 협력 양해각서 체결

전남도는 8일 도청에서 산·학·연·관 8개 기관과 영암·해남관광레저도시인 '솔라시도'의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 기관은 전남도와 해남군, 한국전력공사,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목포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너지밸리융합원, 자동

차부품연구원이다.

이들 기관은 관광레저, 에너지, 헬스케어, 창업벤처, 자율주행, ICT 융·복합 분야 기술을 '솔라시도' 스마트시티에 구현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솔라시도' 스마트시티는 친환경에너지, 첨단농업,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형 관광레저도시

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체결식에서 "낙후된 서남해안권 발전을 위해서는 '솔라시도'가 성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조성이 필요한 만큼 관계 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동구 “힘드시면 잠시 쉬었다 가세요”

다중시설 27개소에 보행약자 위한 의자 90개 보급

광주 동구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위한 '동구행복의자(약칭 동행의자)'를 보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 중 하나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청·보건소·동주민센터·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27개소에 1차로 의자 90개를 보급했다.

2차로 경로당 110개소에도 동행의자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동행의자는 설치공간과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보행약자 이용편의 등을 고려해 제작됐다.

복지관을 방문한 한 어르신은 "무릎이 안 좋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중간에서 한참을 서서 숨을 골랐는데 의자가 설치된 뒤로 편안히 쉴 수 있게 돼 좋다"고 소감을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구의 작은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활력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위한 '동구행복의자(약칭 동행의자)'를 보급했다. 한 시민이 계단에 설치된 동행의자에 앉고 있다.

한편 고령친화도시시는 WHO가 제시한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 편의환경, 주거 편의환경 등 8개 분야 71개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다. 전 세계 37개국 500여 도시가 가입되었으며 동구는 지난해 8월 광주·전남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 6번째로 가입 인증을 받았다.

/서기만 기자 ghszk@

